



# 대전투데이



## 2019년 10대뉴스 1위 '대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 대전참여연대

올해 대전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대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197명 응답)으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위 2019년 대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 시행 & 무상 교복 지원(62.9%)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업무 협의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여름 및 겨울 교복이 한 벌씩 무상으로 지원되었다.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 교복 지원은 지난 2018년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급식 비용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비용을 부담하고, 대전시, 자치구, 교육청이 무상급식 총예산 약 1,160억 원과 무상 교복 지원 약 1,471억 원을 50%씩 나눠 부담하기로 합의 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 2위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 폭등(62.4%)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5% 올랐다. 다른 지역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 하락과 달리 대전광역시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금 유입과 과열된 주택 분양 시장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상관없이 대전광역시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3000호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전 아파트 분양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고 대전광역시는 밝혔지만, 다른 시·도는 이미 대부분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 3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61.4%)

지난 민선 6기 고가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노면전차방식인 트램으로 변경되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포함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상관없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길이 열린 것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 사업비 6,950억 원(2017년 기준)이 투입되는 연장 37.4km(36개 정류장)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러나 서대전육교, 테미고개의 지하화 문제 해결과 대전광역시

전체 교통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제대로 달리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 3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61.4%)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대전광역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동일하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였다. 그러나 갈마지구와 다르게 월평공원 정립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조건부 가결되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은 2020년 7월 1일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재정매입(12개), 민간공원(3개), 해제대상(5개), 조성완료(6개)를 진행하였다.

▲ 5위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vs 민간투자사업 논란(56.3%)

대전광역시는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과 오정동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을 구축동과 금동동일원에 새로운 하수처리장 건설과 함께 이전한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8,433억 원)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대전광역시의 입장이다.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하수처리장 민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수도는 상수도과 동일한 공공시설이며, 민영화할 경우 폭발적인 요금인상과 굳이 세금으로 기업 이익을 보전할 필요 없음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대전광역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단 42초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6위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대전광역시 교육청(52.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4년 연속 종합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최하위 등급은 5등급이지만, 전국 교육청 중 5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4등급인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사실상 청렴도 최하위이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정책고객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청렴도 평가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외부 청렴도는 한 단계 하락하고, 내부 청렴도는 3년 연속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별다른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청렴시민감사관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7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 새로운 야구장 건립 부지 선정(51.3%)

대전광역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는 신규 야구장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비 1,393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야구장은 2024년 12월 준공이 목표이며, 연면적 52,100㎡, 지하 1층, 지상 4층, 관람석 22,000

석, 주차장 1,863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야구장 내에 키즈파크, 관람석, 편의시설, 파티장 등도 함께 건설된다. 그러나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고, 철거될 한밭종합운동장의 서남부스포츠타운 이전과 서남부스포츠타운 내 종합운동장 건설 불확실성은 야구 외 다른 스포츠 종목 선수를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8위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70병상 결정(48.7%)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라는 공공의료 방향과 권역별 병원으로써 기능하기 위해 최소 100병상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박슨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100억 원을 기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440억 원대로 늘어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100병상 이상으로 건립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민간협력자문위원회는 70병상 규모가 적절하다는 대전광역시 기획정책결과과 건립일정 지연 등의 문제로 일단 입원 50병상, 소아 낮병동 20병상으로 출발하기로 결정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이후 병상확대를 고려한 설계, 대전지역병원 소아 낮병동 30병상 확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9위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주민참여제 강화(45.7%)

예산 편성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이 1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까지 2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참여형, 지역참여형, 동지역회의지원사업으로 유형도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대전광역시 4개 자치구와 8개동에서 운영되었다. 주민참여제 강화에 따른 운영 및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더 많은 주민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10위 대전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45.2%)

대전복지재단이 대표이사 막달 파문, 사회복지시설 건설사업 문제, 사업비 불용액 과다 문제, 내부 조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였다. 이사회,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복지재단은 내부적으로 전혀 견제와 감시가 되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보여 주었다. 결국 대표이사 사임 이후 11월 중 신입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5개월여 간 대표이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었다.

이 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혁신 도시 관련 이슈', '여러 기업과 연구소의 폭발 사고로 인한 위험의 일상화', 'LNG발전소 유치 철회', '대전MBC의 성차별적 채용', '제정되지 못한 대전 학생인권조례' 등이 있었다.

이정복기자



### 공주시, 태극기 선양 공로 '대통령상' 수상

공주시시장 김정섭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만세운동 재현행사, 독립운동서발간 등 기념사업을 추진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 국가상징 선양 평가에서 태극기 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또한 숨은 독립운동 영웅 찾기 사업을 추진해 충남동부보훈지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서훈 신청에도 적극 앞장섰다.

한편, 일제강점기 총정권 수부도시였던 공주는 사범행정 경찰

논산시 A공무원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

연말연시를 맞아 어느때보다도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할 시기에 충남 논산시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논산시청 7급 직원 A씨(35)는 지난 27일 자정 무렵 건양대 인근 또 식당에서 가진 직원들간 회식 후 만취한 동료 여직원 B씨(30)를 근처 공사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이러한 현장을 목격한 공사장 인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와 B씨가 각각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져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논산경찰서 강력팀은 두 사람 모두 현직 공무원인 점을 들어 일단 구가 조치 했으나 강간 혐의 등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 엄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규기자

기구가 집중돼 어느 지역보다도 혹독한 일제의 감시를 받았지만, 3.1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애국의 역사를 갖고 있다.

김정섭 시장은 "공주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태극기를 선양·보급하는데 앞장섰"이라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공주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를 보급·관리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빛내는데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 기관,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공주시를 포함해 총 4곳이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공주=정삼범기자

www.sch.ac.kr

SCH 순천대학교

## 대한민국 실용연구 혁신을 이끈다

2019년 선정 대형 국가 연구프로젝트

- 지역혁신 선도연구지원센터 (RISC)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도시발전 조직형상설 연구센터
- 대학 ICT 연구센터 (IRC)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oT 보안기술 연구센터
- 정밀의료기술개발 (IMC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중오믹스 기반 신노출물질 연구센터
- 지역거점 의학혁신 공동연구센터 (대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형 의료기술 실용화 연구
-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센터 (산업통상자원부)
- OLED 소재 및 인쇄공정 혁신기술 개발
-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RRC)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머신러닝 기반 에너지자원신소재 연구센터
-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RRC)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분산 임베디드(SW)RAS용 연구센터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ICOR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연구실 혁신연구센터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H-GTAP)
- 비서연지 관공 협동형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개발

순천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9. 12. 26(화) ~ 2019. 12. 31(화) 18:00까지  
• 문의 : 입학팀 041-530-4945 http://ipd.sch.ac.kr

[유명인] 임도현(전라북도) | [유명인] 임도현(전라북도) | [유명인] 임도현(전라북도) | [유명인] 임도현(전라북도) | [유명인] 임도현(전라북도)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 충남도, 지역 숙원사업 선거 공약에 반영

## 2019년도 6차 확대간부회의... 제21대 총선 공약 제안과제 논의

충남도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업에 지역 숙원사업 및 현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과제를 발굴·모색키로 했다.

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용찬 행정부지사, 실·국·원·본부장, 직속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6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총선 공약 사항 발굴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우선 도는 ▲자치분권·안전 분야 12건 ▲농업·경제 분야 34건 ▲복지·교육 분야 8건 ▲환경·해양 분야 30건 ▲문화·관광 분야 14건 ▲지역개발 분야 22건 등 실·국·원·본부별로 발굴한 120건의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부지 제조혁신파크 조성 ▲소방헬기 추가 도입 ▲영유아보육료 현실화 ▲국가혁신클러스터 국가일반산업단지 조성 ▲원산지 친환경 모바일리 공유도시 조성 ▲충전선로 관련 갈등해



결 위한 제도 개선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유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 등이다.

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운영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 직결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KBS 충남방송국 설립 등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1월까지 추가 사업을 발굴·선별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핵심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핵심과제로는 지역의 미래를 이

끌어 갈 대규모 전략사업과 규모는 작지만 지역·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추진 성과가 큰 사업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도출한 제안과제를 2월 중 각 정당 및 선거 입후보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 지사는 “도의 현안사업과 미래발전과제를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약에 반영해 충남도정이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 실·국별 제안과제들을 우선순위에 맞게 선별·보완하고, 정리해서 각 정당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

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지사는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인 만큼 ▲정부 예산 7조원 시대 개막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정렬도 평가 전국 2위 ▲삼성디스플레이 131조 신규 투자 유치 ▲보령 화력 1·2호기 조기폐쇄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한 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그동안 민선7기 도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등 8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매진해 왔다”면서 “이제 민선7기 중반기에 접어들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지사는 “우리의 계획이 도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가 펼치는 행정에 대한민국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당원협의회, '2대 독재악법' 철폐 거리 홍보 나서** 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당원협의회는 27일 2대 독재악법 및 3대 국정농단 실상을 공개하기 위해 대덕구 관내 거리로 나섰다. 당원협의회는 이날 문재인 정권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2대 독재악법(공수처 법, 연동형 선거법)'과 '3대 국정농단(허명수, 대출비리, 검찰무마)'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섰다.

## 성일종 의원 '국리민복상' 4년 연속 수상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은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성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9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리민복상 수상자에 성일종 의원이 포함됨으로써 성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2016년부터 4년 연속,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4년 연속 수상자는 성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을 뛰며, 힘들고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수상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산·태안 대표로서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청양군의회, 2019년 의정활동 결산

91일간의 회기운영 통해 안건 119건 처리



청양군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행정 감시자의 역할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2019년 한해였다.

정례회 2회를 비롯 총 9회 9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 총 86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9건 등 총 119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견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함으로써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5건의 5분발언을 통해 군

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노력했으며, 특히 읍면사무소 TV방영시스템을 도입해 의정과 군정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제8대 청양군의회 의회 운영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월 KT청양지사 통폐합 논의에 맞선 청양군의회 반대결의문 채택과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서울시 상생상회 입

점 건의, 은곡 제1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갈등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군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데 힘써 왔다.

이와 함께 3차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위한 현장견학을 통해 청양군의 관광 개발, 도시재생,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4차례의 의정연수를 실시해 공부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조례, 공무원 외출규칙 등 개정을 통해 내부 쇄신을 통한 청렴강화와 군민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예 의회가 스스로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구기수 의장은 "지난 한해동안 의원 모두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군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든든한 뒷받침 덕분이었다"며 "2020년 새해에도 새롭게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 윤용대 의원, K-POP 브랜드

한류문화 사회봉사대상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26일 K-POP 서포터즈그룹이 주최하는 '2019 K-POP 브랜드 한류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용대 의원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윤용대 의원은 "150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의 상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전념하여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김기준 청양군의회

대통령 표창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청양군협의회 김기준 위원이 지난 2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평화통일행보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 위원은 또 청양군의회 의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정활동 상황을 군민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군정 각실과 읍면사무소에 TV방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변화의 선봉에서 왔다.

청양=정성범기자

## 이은권 의원 "공수처 설치하는 악법 중의 악법"



이은권(자유한국당·대전 중구·시진) 국회의원은 29일 최근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법은 애초에도 우려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에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성은 빠지고 오직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임명하여 검찰을 장악하고 정권의 친위대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썩었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공수를 동원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 연장에 대한 야욕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1% 친문세력을 위해 99% 국민을 농락하는 좌파 독재정권에 더는 속을 수 없다. 국민여러분, 오만과 독선, 위선으로 가득찬 정부와 집권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정복기자

##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 마을사업 육성 의정토론회 개최

전문가·주민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머리 맞대



충남도의회는 26일 논산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마을사업 육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의 좌장을, 가와바코리아(주) 윤기확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영실장과 산업연구원 정윤선 박사, 충남도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할 주민 주도 마을기업 운영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고 도 관련 정책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주민과 함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마을사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

동체 소득 창출 등 공동체이력을 다목적 홀에서 마을사업 육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의 좌장을, 가와바코리아(주) 윤기확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영실장과 산업연구원 정윤선 박사, 충남도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할 주민 주도 마을기업 운영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고 도 관련 정책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주민과 함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마을사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

## 청와대-대전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방문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시구 관계 공무원 등 참여



대전시는 26일 오후 3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동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했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현장 점검을 위한 이날 현장방문에는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시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현황 및 건의사항, 초등돌봄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관련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연계해 초등돌봄사업을 강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대전시 온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 담당자 및 센터 종사자 등과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김태성기자

##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2대 독재 악법 철폐, 3대 국정농단 심판' 대국민 홍보활동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조치원역에서 '2대 독재 악법 철폐, 3대 국정농단 심판'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019년 대전교육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구축에 힘쓴 한 해였다. 대전교육의 올 한 해 성과로는 지방교육재정 분석 4년 연속 우수 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평가 5년 연속 우수 사업단,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종합 A등급, 전국 직업계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 전국 규모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대전투데이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만나 올 한해 교육성과와 내년도 새해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올 한해 대전교육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죠.  
올해에 대전교육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마음껏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도 대전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분석 4년 연속 우수 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평가 5년 연속 우수 사업단,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종합 A등급, 전국 직업계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제1회 한국코드페어 대회에서 초등부와 중등부 금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규모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체험지원센터, 대전수학체험센터, 대전다문화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하였으며, 현장 기반 교육정책 운영을 위한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설립하여 교육공동체가 참여 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육가족과 시민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아쉬웠던 점은  
시설환경개선, 학생복지, 교원업무경감 등 현장 중심·학생 중심의 정책추진에 주력했지만, 제한된 예산이나 인력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확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이 더 참여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대전교육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0년 대전교육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인교육,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확산하고, 학생건강의 체계적 관리와 질 높은 무상급식으로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 자정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 풍토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또한, ‘문예체 체형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대전교육 3대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새해 중점 추진분야는.  
대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복지”의 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과학·융합인재교육, 맞춤형 진로교육, 마을교육공동체와 혁신교육지구 운영,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같은 사업들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입부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미래를 코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예정이며, 탐구·체험중심의 생활 속 수학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부권 유일의 대전수학문화관을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면교체 및 내진보강 공사를 비롯해서, 교사 내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 과학실 노후 밀폐시약장 교체, 학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체육관 증축, 화장실 수선·냉난방 개선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를 위해 고등학교 2·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유치원 누리과정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사회적 배려 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졸업앨범·기숙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서로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해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기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다. 공약 이행은 잘 되고 있는지요.  
현재까지 공약은 목표 이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에드림홀 설치 사업’의 경우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19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예정보다 많은 10개 학교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메이커교육을 통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메이커교육센터 2개소 설치를 완료하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



기 위한 공약 사업들을 기대 이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를 시작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확대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기대한다면.  
혁신교육지구가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 주도의 참여활동이 확대되어 학생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진로에 대한 주제적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도모 및 학교밖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배움으로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2019년 7월 24일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과 관리자 연수를 마쳤고 12

월 21일 마지막 5기 연수를 끝으로 1,600여명의 교사 연수를 완료하게 됩니다. 둘째, 개정 누리과정의 빠른 안착을 위한 시범 유치원을 2019년 2개원 운영하여 성과를 공유하였고 2020년에도 개정 누리과정 시범 유치원과 연구학교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해설서와 2종의 현장지원 자료를 배포하여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렴도 제고 방안은  
그동안 대전교육청에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토론회, 민관협의체 운영, 시민감사관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측정도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렴 정책을 개발하여 불필요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가족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의시 제고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과 공정·투명·진정한 행정을 추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대전교육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올 한 해는 교육가족과 시민여러분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화가 가속화 되는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서 소통과 협력으로 제안해주신 의견과 방안들을 교육정책에 소중하게 활용하여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대전교육가족은 우리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며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답=이정복 편집부국장

● 특 정 ●

우수의원·위원회 시상식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30일 오후 1시 30분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위원회 시상식에 참석.

커뮤니케어 시범사업 협약식



황인호 동구청장 = 30일 오전 10시 구청장 접견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협약식 개최.

주간업무회의 주제



박용감 중구청장 = 30일 오전 8시 30분 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간업무회의' 주제

사랑의 쌀 기탁식



장종태 서구청장 = 30일 오후 2시 서구청 갑천누리실에서 열리는 사랑의 쌀 기탁식에 참석한다.

옥스타 후원물품 기탁식



정응래 유성구청장 = 30일 오전 11시 40분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열리는 옥스타 후원물품 기탁식에 참석.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의 주제



박정현 대덕구청장 = 30일 오전 10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대덕구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제.

# 대전시 안전브랜드 상표등록

##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상표등록 완료... 오는 2029년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대전시는 안전브랜드(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상표등록을 2019년 완료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범지역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구 범죄예방 2016년 3등급에

서 2017, 2018년 4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범죄에 취약한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사전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브랜드(도심으로 돌아온 등대)사업을 년차별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

대전시는 장기사업으로 매년 2곳에 12억 원을 투자해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자치구에

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5곳에 15억 원(구별 1곳, 3억 원)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안전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017년 대화동 어린이 공원에 셉테드 기법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사업을 완료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I)'를 모니터링 결과 전년 대비 범죄율이 78% 감소하고 범죄예방 효

과에 80%이상, 야간 취약지역 개선에 65%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범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대전시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안전브랜드를 셉테드(CPTED) 모델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셉테드(CPTED)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II, III'를 서구 도마2동과 대덕구 오정동에 조성기로 하고 현재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중이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대전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셉테드 사업이 대전시 전역으로 확산되면,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전만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중구, 보문1·3구역 사업 추진 더욱 박차

## 2014년부터 예산 확보로 2022년까지 사업추진 민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감)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보문1·3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된 보문1·3구역은 230여 억 원의 사업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21개 도로 개선·확장, 6개 주차장과 3개의 소공원 조성 사업목표다. 올해까지는 각각 3개

도로와 주차장 준공을 마치고, 현재는 도로 3개 노선, 주차장 2개 조성이 한창이다.

이달에 착공한 소로3-대사21호선 도로개설과 제6호 주차장 조성공사는 중구 대서동 203-5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의 주차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2020년에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

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10%)을 지방이양사업 보전분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비세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23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보문1·3구역 잔여사업 진행이 원활해진다.

박용감 구청은 "보문1·3구역은 인근 보문산이 있어 숲세권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우리 구도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해 편안한 주거공간 조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구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7일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하게 될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은 가오동, 대동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세 번째로 내빈과 지역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황인호 구청장의 기념사에 이어 참석 내빈들의 축사, 센터장 인사말, 위촉장 전달, 제막식 및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구는 가오동, 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어 세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으로 도시재생대학,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공모 신청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지원센터는 총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로 구성돼 ▲도시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추진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리 및 의견조율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황인호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도시생활성화계획에 담을 것"이라며 "주택재개발 해체에 따른 개발 상실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구 '음악이 있는 찾아가는 마을 토크' 개최

##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나아갈 방향 고민"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찾아가는 마을 토크 '함께 행복하 대전 서구 더불어 마을 캠프'를 지난 26일, 27일 이틀간, 정림종합사회복지관과 청춘두두두(대전시 청년공간)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경계를 허무는 OO동 마을자치 이야기-마을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공감 콘서트와 마을 토크가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정림동과 갈매1동을 시범으로 향후 서구 모든 동

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산시 감골주민회 이영임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정림동 수릿들축제를 개최한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구장완 관장이, 27일에는 前 관저품앗이 공동체 대표이자 현재는 갈매1동 주민자치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권수영 대동 자치지원관이 사례 발표를 했다.

이어진 마을 토크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설치했던 마을보드판에 적힌 이야기들과 현



장 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한 점과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종태 구청은 "한 해를 마무리

# 로컬푸드 가공 시제품 시식행사

## 유성구, 로컬푸드 가공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응래)는 지난 27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유성구 로컬푸드 가공지원사업 조사사업자들이 개발한 로컬푸드 가공 시제품 시식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품제 및 반찬 사업이 대전시 전역으로 확산되면,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전만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지역 로컬푸드 관련 단체들이 이날 시식행사에 참여했다.

정응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 먹거리 정책은 민관협치에 기반한 도시형 푸드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순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확보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로컬푸드 가공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로컬푸드 기반 취

## 박정현 청장, 올해 2,000여 명의 주민과 목요일테

## 주민 목소리 경청 404건 민원 해결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매주 목요일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민원 현장을 찾거나 구청장실에서 주민과 만나는 '목요일테'를 하고 있다.

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33회의 목요일테 운영으로 137곳을 방문 2,000여 명의 주민들을 만나 25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고 민선 7기 들어서는 총 43회, 187곳을 방문해 40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은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즉시 해결하고 처리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기록 관리해 진행상황을 그때 마다 건의자에게 알려준다.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구는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의 사랑방에서 구청장이 주민을 직접 만나는 '목요일테'를 실시해 왔다.

구 관계자는 "목요일테는 구에서 추진하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연병



과 여러 계층의 주민과 만난다"며, "주민의 작은 건의사항에도 큰 기울여, 민과 관의 상호 의견 교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목요일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한 건의사항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고, 구정운영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의 답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찾아 구민과의 친밀한 접촉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한밭새마을금고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밭새마을금고는 지난 27일 학업성적이 우수한 회원녀와 월평2동행정복지센터의 추천으로 34명을 선정 장학증서와 함께 총 254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한밭새마을금고 천순상 이사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고는 관내 노인정 등에 지속적인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랑의 삼계탕나누기 행사를 비롯해 김장나누기, 줌도리(쌀기부)행사 등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금고는 현재 회원수 5만 9254명, 총자산 7350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지역금융기관으로 각종 사회환원사업과 회원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송병배 기자



우리/동네



천안시, 2019년 전통시장

상점가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

천안시는 지난 26일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에서 '2019년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 지역통계 정책 활용 및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충청지방통계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10일간 조사를 실시했다. 전통시장 5곳, 상점가 4곳의 총 1,260개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경영현황, 활성화 방안 등 총 3개 부문 25개 항목이 조사됐으며, 그 결과는 이날 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한 시정별 맞춤형 지원책 제공은 물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소상공인들의 활로 개척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청소년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강좌 및 주민간담회 개최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청소년건강생활지원센터는 27일 청소년 주민들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청소년 새해맞이 건강강좌 및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강좌는 최영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건강한 인생 살기'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간담회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지역의 건강 관련 문제들을 들어보고 함께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돕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와 주도적인 건강 활동 수행으로, 건강증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민자 동남구보건소장은 "청소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정기적인 주민과의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갈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시 방문

어려운 이웃 돕기 쌀 기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김전승이 지난 26일 천안시를 방문해 쌀 1000kg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나눔 기반 식습관 개선 캠페인 활동으로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운영하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학교단체와 특성화 캠프 참가기관 총 7,078명의 참여로 나눔 쌀을 기부하게 됐다. 수련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식습관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으며, 수련원 이용 후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물품과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캠페인 지지방사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수련원에서 우연히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하며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주위 사회배려계층에 쌀도 기부해 매우 보람차다"고 말했다. 김전승 원장은 "청소년의 나눔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확산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욱더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사업추진 가속화

천안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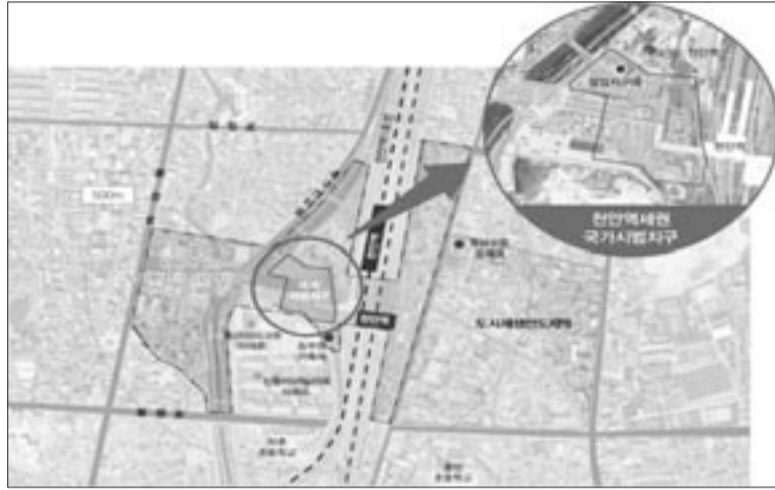
천안시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정부가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천안역세권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기반시설, 생활SOC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 통합심의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역 세쪽에 접한 사업부지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 있다. 총 사업면적은 약 1만5000㎡, 총 사업비는



약 1,886억 원이다.

천안역과 연결된 사업부지는 집객 및 성장기반이 우수하고 부지확보(천안시, 코레일 소유 등)를 통한 사업의 빠른 추진이 기대되며, 인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

다. 천안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LH,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발사업 계획으로는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집객 및 거점조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내 대학·기업과 산학연계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인 생활SOC 시설을 제공한다. 또 지역 수요를 반영해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196세대를 공급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행계획 인가를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인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천안시에서 시작했다"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천안역세권 역시 또 하나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통정**  
신설 착공식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 30일 오후 2시 두정역 일원에서 열리는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착공식에 참석.

천안시, 청소년시설  
종사자워크숍 개최

천안시는 지난 26일 목천읍 일원에서 소통과 교감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청소년정책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철용 교수(백석대학교)의 강연에 이어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윤주희 위원장이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뇌와 꿈을 치유하는 '브레인&바디 릴렉스'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심신의 안정과 힐링을 위해 에너지 명상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심신의 힐링과 상호간 소통·교감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시-천안문화재단  
'아두 2019제야행사' 개최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안대진이 오는 31일 다시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2019 제야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제야행사는 오후 10시부터 1부로 천안시청 봉사실에서 '송년음악회'가 열리며, 2부에서는 봉사실 앞 광장에서 '함께하는 새해맞이'와 '희망 불꽃쇼'가 진행된다.

송년음악회는 무료이며 입장권을 배부받으면 지정된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입장권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1인 1매에 한해 봉사실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출연진으로는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남진, 천태만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윤수현, 트로트 가수 조은새,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민우, 팝페라그룹 에클레시아, 천안시립예술단무용단·풍물단이 공연을 펼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함께하는 새해맞이는 천안시민들과 민족족과 '알'의 길놀이, 신년 키운트다운, 지역가수 김나은, 김경란의 축하공연, 시민들이 작성한 소년풍선 날리기, 희망 불꽃쇼로 준비된다.

공연 외에도 광장은 ▲루미나리에 ▲경관조명 ▲포토존으로 꾸며져 시민들은 직접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남겨볼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지역유선채널 티브로드 중 부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천안시 페이스북 북과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

읍면동 안내창구 담당자와 함께 의료분야 보조사업자 간담회

천안시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30개 읍면동 안내창구 담당자와 함께 하는 의료분야 보조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돌봄 대상자를 처음 접하는 읍면동 안내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 단계부터 보조사업자 서비스 제공까지의 절차

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표방하는 선도사업 핵심요소 중 하나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방문의료서비스이다. 이에 시는 천안시 의약단체와 다수의 간담회를 거쳐 방문형 의료서비스 개발과 제공

에 매진해 왔으나, 서비스 수혜자·제공자 모두에게 새로운 시범사업인 만큼 애로사항도 적지 않아 이번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다.

이날 돌봄 대상자를 보살피는 참석자 50여명은 발전된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완방향을 찾으며 활발하게 의견을 냈다. 강재형 복지정책과장은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에 맞춤형 건강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견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방문진료 ▲방문한방진료 ▲방문복약지도 ▲방문재활 ▲가정간호 ▲방문구강건강관리 ▲웹방송실명 총 7가지로, 천안시의사회를 포함해 8개 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천안시, 내년부터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 시행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상 대여

천안시가 내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대여한다.

시는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용차량 공유(무상대여)이용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2대를 시범 운영한 후, 공용차량 공유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 시민의 반응도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공용차량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가정 등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원자력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제9회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천안시가 27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9회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에서 원자력 산업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날 표창은 원자력산업 및 원자력 기술개발 분야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기 위해 추천을 받아 수여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직산읍 관정리 라돈침대 사태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농성해제 및 집단민원을 해결한 공로로 받게 됐다.

또 전국 각 지역에 묶여있던 라돈침대 매트리스를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협조 끝에 천안시로이송해 원만한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집단민원 해결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송태호 청소행정과장은 "직산읍 관정리 지역주민들의 대응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표창의 공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리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 천안시에 정책 제안 전달식 개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시범사업, 천안신흥초등학교·천안수신초등학교와 실시



천안시와 굿네이버스 충청지부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의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구호개발NGO단체 굿네이

버스는 지난 9월 16일 아동전화도시 조성 위해 천안시와 민관협약을 맺고 '굿모션'이라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시범사업을 천안 신흥초등학교·천안수신초등학교와 실시했다.

굿모션은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 놀이 공간과 통학로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권리 침해 사례 실태를 조사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쳐 이날 정책제안서를 천안시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들의 놀이·문화 공간, 도서관 필요 ▲학교 앞 과속차량, 불법 주·정차 차

량 단속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 음주 금지 ▲놀이시설 안전 점검 시 아이들 의견 청취 ▲방범 CCTV 설치 확대 등이 제안됐다.

전달식에는 신흥초·수신초 관계자와 12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정책 제안 내용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도 발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전달식은 아동정책의 당사자이자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소중한 의견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전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 ‘안전신문고’ 신고 올해만 100만건 돌파

## 지난해 신고건수 23만6천2건 대비 4배 넘게 급증

행정안전부는 올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26일 현재 1백만 건(1,000,578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신고건수 23만6,002건 대비 4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안전신문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백만 여건 중 80만 여건(83.7%)이 수용되어 개선조치가 이루어졌

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 신고가 52만여 건으로 급증하였다.

유형별로는 신호등 및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787,351건(78.7%), 해킹·개인정보 도용 등 사회안전 59,311건(5.9%), 학교시설 불량·학생 지도 등 학교안전 47,394건(4.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교 주탑 외이어 손상, 노후 교량 붕괴 위험, 전신주 감전 위험, 도로 땅 꺼짐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신고도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6,020건(2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06,426건(10.6%), 인천 89,185건(8.9%), 대구 78,935건(7.9%) 순으로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보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카카오톡의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안전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정부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태안소방서, 구조대원 소방드론 운영능력 교육**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희)는 27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한 소방드론 운영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소방드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추진됐다.



**“청양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용소방대가 되겠다”** 공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 의용소방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청양군내 530여 화재 취약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 중이다.



**아산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훈련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지난 27일, 순천향대학교 인문고려대학 대강당에서 2019년 신규 임명 의용소방대원 227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했다.



**대전현충원, 봉사활동 우수단체 감사패 수여식 가져** 국립대전현충원은 지난 26일 봉사활동 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봉사활동 우수단체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임성현 원장(가운데 왼쪽)이 유산회와 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체에 우수단체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

### 어르신 소원 선물 산타행사가 가져

대전 서구 율령동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원장 이진숙은 지난 24일 본 센터에서 주야간보호 이용 어르신들의 소원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소원하는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인천 진산중학교 오상훈 교사(모나리자 화장지 후원),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김원수교수, 학생, 대전예술단을 초청하여 노래와 춤을 선사하여 드렸다. 함께 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추운 겨울을 잠시 잊고 따뜻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감사하다는 평과 함께 행사를 마린해준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산타복장을 갖추어 입은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공동으로 해결해드리기도 하였으며, 정성스럽게 마련된 사랑의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 이진숙 원장은 “모든 어르신들께서 고통 없는 행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어르신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디딤돌을 놓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하고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협력해주신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김원수교수, 대전예술단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성구기자

### 카메라 보도



**세종 전통시장 화재 8개점포 태워...인명피해 없어** 29일 오전 9시 9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 전통시장 내 한 점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8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관 52명과 소방차 등 17대를 긴급 출동시켜 1시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공주시축구협회, 2019 축구인의 날 행사 및 송년회 개최

2019 축구인의 날 행사 및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공주시축구협회(회장 이상덕)는 지난 27일 신관동 예가에서 2019 축구인의 날 행사 및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충남도와 공주시 축구발전을 위해 애쓰신 축구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자리와 축구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박병수 공주시의회위원장, 이상표 시승열 시의원, 최훈 도의원, 최원석 정진석국회의원사무국장, 이근주 공주시야구협회장, 공무철 충청남도축구협회장, 도내 각 시군축구협회장, 공주시 축구협회회원, 공주시 축구클럽 회장단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상덕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사랑하는 축구동호인과 내 외빈을 모시고 송년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자리를 참석해 주신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2019년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하고 참다운 리더쉽은 말보다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각오로 헌신하며 열심히 일한 한해로 내년에는 더욱더 도약하는 공주시축구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공주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쌍신축구장의 진출입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며 “축구장공사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박병수 의장은 “오늘 송년회에 공무철 충남도협회장을 비롯한 각 시·군의회장들과 공주시축구인들을 한자리에 보니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고 “이는 이상덕 회장이 축구인으로 변함없이 열심히 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2020년에는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철 충남도협회장은 “공주시는 예전부터 동호인축구가 잘 다져온 곳으로 이상덕 회장의 리더쉽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몇 년 후면 충남에는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고 대한축구협회가 이전하게 되어 충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가 될 것으로 충남축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충남축구협회는 공주시에 도 내 대회와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공주축구발전에 공이 큰 실버축구회 이상병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축구동호인과 공주시청 문화체육과 백승훈 체육시설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3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당진소방서, 주거용 컨테이너 합동 안전 컨설팅 실시

당진 관내 주거용컨테이너 가구 등대상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26일과 27일 2일간 당진 관내 주거용 컨테이너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당진시청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당진시청과 함께하는 이번 합동 안전컨설팅은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컨테이너,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예방컨설팅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가구별 소방·전기 점검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제거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설치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교육 ▲3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 교육 매뉴얼 배부 등 실질적인 활동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서구,신축건축물 대상

건축 행정 내실화 점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준공된 신축건축물 77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 내실화 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건축 등 부허가(신고) 건축 행위와 건축물 조경 시설 훼손, 부설주차장 미유지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77개소 중 6개소에 불법 건축, 조경 훼손 등의 위반 사항이 있어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서산소방서, 우수다중이용업소 인증현판식 가져

### 우수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선정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2019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고 지난 29일 인증현판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며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과 소방훈련 실시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이 된 엠산후조리원은 향후 2

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매 2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권 소방서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업소라는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아산시, 연말연시 맞아... 안전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연말연시에 안전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정착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6일 오전 8시부터 양양온천역광장 일원에서 시 관계자, 아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양양온천역광장 일원 거리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 마당회 모임 등 잦은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에 음주운전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시기이다. 음주운전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올해 대학 취업률 평균 67.7%...대전 69.4% 상위권

## 인문계열이나 사회·교육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평균에도 못미쳐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44%는 월급을 200만원도 못받고 있다. 또 인문계열이나 사회·교육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평균에도 못미쳐 의학·공학계열보다 10%이상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 취업률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 격차를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률이 다소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5808명 중 대학원 진학자, 군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는 49만1392명이다.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30만 1,182명, 해외취업자 2,895명, 1인 창사업자 6,290명, 프리랜서 1만

8,75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0.2%p 증가하였고, 1인 창사업자, 해외 취업자는 각각 0.5%p, 0.2%p 증가하였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9.0%, 비수도권 취업률은 66.8%로 2.2%p의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로 인천(71.6%), 대전(69.4%), 울산(69.3%), 경기(69.1%), 전남(68.9%), 서울(68.6%), 충남(68.4%)은 전체 취업률보다 높았으며, 제주(▲0.7%p), 충남(▲0.1%p)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남성 졸업자 69.6%, 여성 졸업자 66.0%로 3.6%p 차이를 보였다.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남성 취업률의 증가폭(1.8%p)이 여성 취업률의 증가폭(1.2%p)

보다 크게 나타났다.

2018년 졸업자(2017년 8월 졸업자 포함)의 12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9.0%로 전년(78.8%) 대비 0.2%p 증가하였다.

일반대학 79.8%, 전문대학 74.5%, 일반대학원 89.7% 등으로 전년 대비 대학(▲0.2%p), 교육대학(▲6.9%p), 산업대학(▲0.3%p)을 제외한 모든 학제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80.1%), 공학계열(83.5%), 의약계열(82.5%)은 전체 유지 취업률(79.0%)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74.7%), 사회계열(78.2%), 자연계열(76.4%), 예체능계열(65.7%)은 낮게 나타났다. 2018년 졸업자(2017년 8월 졸업자 포함) 중,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은 244만 3천원이며, 학부의 월 평균 소득은 227만 8천원, 일반대학원의 월 평균 소득은 421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기간에 따른 취업자 비중은 졸업 전 취업(35.1%), 졸업 후 3개월 이내(24.9%), 9개월(15.0%), 6개월(14.9%), 10개월 이상(10.1%)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 취업자의 비중은 중소기업(44.6%), 비영리법인(16.1%), 대기업(11.4%), 중견기업(11.0%),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8.5%), 공공기관 및 공기업(4.7%),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유형별 취업자의 비중은 제조업(20.4%), 보건·사회복지(16.5%), 전문·과학·기술(8.5%), 도소매(8.5%), 교육(7.3%), 정보통신(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복기자

세종시교육청-청주교육대학교, 초등 문해력

## 교육·연구 역량 증진 업무 협약 체결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7일 청주교육대학교와 초등 문해력 교육·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세종시교육청은 한글 교육과 초등 문해력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초등 문해력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인 <읽기따라잡기> 교사 직무 연수를 청주 교대 문해력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해 오

고 있다.

또한, 청주교대 대학원의 초기 문해력 전공 석사 과정에 현직 교사를 파견해 초등 문해력 교육 분야의 교사 리더를 양성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초등학교 교사의 초기 문해력 교육 전문성 개발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교사 파견 <읽기 따라잡기> 교사 연수의 지속적 운영 ▲느린 읽기 학습자를 위한 초기 문해력 개별화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상호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초기 문해력 교육을 실천할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꾸준히 높이고 특히 읽기가 느린 학습자 개별화 지원을 통한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세종=김태성기자

## 시·도교육청 최초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운영

충남교육청, 교육청과 학원 간 온라인 문서 등 전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업무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원업무통합시스템은 학원 관련 법령이나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학원 운영자들에게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

그 동안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한 각종 문서를 문자나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했지만,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학원·교습소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서 전달과 의사소통이 이뤄져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정기적 자가 진단 점검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받는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적발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건전한 학원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학원업무통합시스템을 통해 전근대적 정보 전달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함으로써 학원·교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행정 업무 효율화와 민원 만족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상상력을 공유해 만들면서 배워요!"

공주교육지원청, 고마상상이름 발명교육센터 개소식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백옥희)은 지난 26일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교육과 상상이름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고마상상이름 발명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충남교육청 전종현 미래인재과장, 관내 초, 중등 교장(감), 과학 담당 교사,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고마상상이름 발명교육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공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만들어 가는 교육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공주중등초등학교 내에 기존 교실 3개를 리모델링해 발명제작실, 상상

이름실, 목공실을 마련했다. 고마상상이름 발명교육센터에는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네오봇, 스크롤 소 등의 첨단 제작 장비와 목공제작 장비를 설치해 앞으로 공주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창출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마상상이름 발명교육센터는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교육과 상상이름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 공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만들어 가는 교육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공주=정삼범기자

## KTCS, 신라대학교 취업캠프 운영

신라대 재학생 대상 스피치 강의, 모의면접 등 취업 역량 향상 캠프



KTCS(대표 양승규)가 신라대학교 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취업캠프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융합기계 및 인공 지능계열 학과 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됐다. 학생들의 면접 스킬 강화를 위해 스피치 집중 교육과 실전 모의면접으로 캠프가

진행됐다. 또한 KTCS는 2013년도부터 동국대, 충남대 등 약 30여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취·창업 캠프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9년 올 한 해 동안 39회의 취업 캠프를 운영했다.

김상민 KTCS 컨설팅사업단장은 "다양한 대학교 취업캠프를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취업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도 고민해보는 캠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초등3학년 사회과 지역화 보완교재 발간

아산교육지원청 '발전하는 아산' 발간해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배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보완교재 발전하는 아산을 발간해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했다.

지역화 보완교재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보완교재로, 우리 고장 아산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역사, 문화 등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

교재 발간에 앞서, 아산 관내 2019학년도 3학년 담임교사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내용과 구성,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한 분석·검토 과정을 거쳐 교재 개발이 진행

됐다. 특히 우리 고장의 변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교육원 신선회 관련 내용 등 최신 지역화 내용으로 보완했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학생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재는 관내 초등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아산지역화교재개발팀이 집필했으며 지역 전문가의 심의·검토를 통해 교재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도를 높였다. 또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 학습 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보급하기 위해,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 기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0학년도 사회과 지역화 보완교재를 활용하여 아산 학생들이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우리 고장의 문화, 역사, 자연환경 등 지역 특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며, 애乡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대전교육청, 내년 주요 교육정책 발표

신년사 교육혁신, 창의융합, 안전·건강, 기회균등, 공정·효율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그동안 추진했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의 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과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 역량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시교육청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과학·융합인재교육, 맞춤형 진로교육, 마을교육공동체와 혁신교육지구 운영,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을 관심 있게 추진할 방침이며, 2020년 정책 방향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존중과 책임의 자율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조성한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인교육과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확산하며 학생건강의 체계적 관리와 질 높은 무상급식으로 건강한 배움을 조성한다.

▲넷째는,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로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을 추진하며, 통합과 지립의 특수교육과 학습과 삶에 연계한 평생교육을 내실화한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 대전교육의 풍토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대전교육 3대 역점과제로 추진해왔던 문예체 체력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새해에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대전 지역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기회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천교육지원청, 충남교육청-서천군-건양대와 입학력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협약식

##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다!"

청양 가남초, 학부모 초청 신입생 및 재학생 학교설명회 실시



상이 될지, 그에 따른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결과가 어떤 학생을 길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에 따라서 가남초는 어떤 학생을 길러내야 하는가를 나누며 당당하게 두 발 딛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인재상을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학생자치와 체계적인 교육, 꿈과 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성장하는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학년성에 맞는 체험과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넓혀 가는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남초는 2020학년도에 4년 동안 지원되는 혁신학교에 선정되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가사-에너지실과 학생자치실, 영어체험실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청양=정삼범기자

## 천안불무중학교, 꿈 발표 합창대회 열어



천안불무중학교교장 이혜숙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학생들의 꿈 발표대회와 합창 대회가 열렸다.

26일에는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누리관(강당)에서 꿈 발표 대회가 먼저 열렸다. 우선 꿈 발표대회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찾은 나의 꿈과 진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희망한 학생들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꿈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 왜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꿈과

관련된 나의 롤 모델은 누구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등을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300여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감과 당당한 모습으로 발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꿈 발표 대회에 이어 1학년 학생들의 합창대회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2주 동안 같이 구운 실력을 뽐내며 단합력을 보여주었다. 배려와 존중을 주제로 한 노래를 선정하거나 개사하여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 등 창의적인 모습 또한 보였다.

천안=이정복기자



#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 공주시, 3개 분야 18개 시범사업 · 2020년 1월 17일까지 신청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새로운 영농 기술 보급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월 17일까지 2020 농업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20년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3개 분야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현지 심사를 거쳐 대상 농업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버

농식품유통분야 · 1년간 성과 풍성

서산시, 150% 증가한 171억 수출 달성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서산시 농식품유통과가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의 신설은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행정호 서산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이 신설되자마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지난 3월 죽으로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본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7억원 규모의 품부기 쌀과 잡곡을 전속 출하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리고 7월부터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파와 마늘(난지형), 감자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직자, 기업체, 유관기관, 국회 등과 연대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 30억원 상당의 판매 성과를 올렸다.

이와 동시에 전국 120개 롯데마트 매장 및 GS24, 농심, 오리온 등 대형 유통업체에 갑자 1,040톤, 15억원 상당을 납품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또한 내수부진에 따른 수급조절과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등 수출경쟁력을 높여 전년(9,863천\$, 113억) 대비 151% 증가한 171억(14,932천\$)의 농산물 수출 성과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화훼류, 풋감류, 축산물 등 기존 품목의 안정적인 수출을 꾀하면서 동시에 접목선인장, 냉동딸기 등 신규 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등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교포시장 공략을 위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뉴질랜드의 8개 마트에서 품부기 쌀, 아리굴젓 등 지역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어 1억 3천만원(113천\$) 상당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며, 내년에는 호주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지역역거리 선순환체계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도 현재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나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산시는 지난 3월 농식품부 푸드플랜 공모를 통해 정부지원 A등급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로컬푸드 안정 공급기반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총 5,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행정주도가 아니라, 설명회, 시민 및 전문가 토론회, 견학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는 시민과의 소통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오픈마켓을 활용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채널인 우체국쇼핑과 G마켓, 옥션 등을 통해 꾸준히 성과를 올려 올해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제1회 온라인마케팅 연도대전(협업소통 부문)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 밖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도 2년차를 맞아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지역식재료 공급 비율도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37.8%를 공급해 지역농가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직원들은 정말 바쁘게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과 지역농산물이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농민들이 판매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재배단지 육성 시범 등 식량작물분야 6개 사업, 전통식품 소포장 상품화 시범 등 생활기술분야 4개 사업, 인산 신제품 직파재배 시범 등 소득경영분야 8개 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주시민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사업별로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실증 시험 요인들을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은복 기술보급과장은 "2020년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히 보급해 공주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 아산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우수기업 선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9년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에 참여한 기업·기관·학교의 활동을 평가해 ㈜금비, ㈜농심, 삼성전자(주)ISP총괄 연세대학교연세우유, 한화에너지(주)주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여 지

속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은 기업·기관·학교가 하천 수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으로, 현재 42개 기

기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관계자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수생태계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학교 등에서는 아산시 환경보전과 실개천 생태팀으로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부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1층

## 2020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조금 지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 기업은 '19년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3천만원~1억원까지 바우처 보조

금을 지원받으며, 협약일로부터 1년간은 오프라인 수출지원 메뉴를 활용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하면 되고, 수출관련 서비스 메뉴판 12개 대부분 중에서, 세부 등록된 5000여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부여받은 바우처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7

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관청 장정은 "올 한해는 일본수출 규제, 미중무역갈등 및 세계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내년에는 수출전망이 밝다고 전망되는 만큼 수출기업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산시 재활용 촉진·도시환경 개선 클린하우스 설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깨끗한 아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쓰레기 배출 장소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5곳에 이어 관내 11곳에 클린하우스(쓰레기 집하시설)를 추가 설치했다.

추가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종량제봉투 수거함, 재활용품 수거함, 비가림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기존 개방형 클린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한 여닫이문을 제작

해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낮추고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날림현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는 아울러 각 클린하우스마다 해당마을 이·통장 등 관리자를 지정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후정리 관리에도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해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고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올해까지 관내 59개 장소에 보급되었으며 무분별한 재활용품 배출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거점에 설치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클린하우스를 보급할 계획이며 주민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당진시 제13호 한방장수마을 선정

보건소, 지난 27일 합덕읍 도곡리 선정 선포식 가져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27일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를 제13호 한방장수마을로 선정하고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방장수마을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시외 지역 마을을 선정해 다양한 한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중풍 관리와 우울감 및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제13호 한방장수마을로 지정된 도곡리는 59가구 1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1년 동안 주 1회 한방진료와 더불어 주 2회 골관절에 방채조 및 주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계자는 "주민들의 큰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한방장수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시행

대상 농산물 36품목 선정 · 적용가격기준 결정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가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 플랜)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기준가격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 26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부군수 김기준)를 열고 제값 받는 농업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월부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대상품목 36가지와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는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군은 또 이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 친환경농업 전환을 도모한다.

보장위원회가 결정한 대상 농산물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며, 선정기준은 푸드 플랜 출하 농산물 중 친환경 전환가능 품목, 공급량이 많은 품목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밤과 구기자를 추가로 선정해 최대한 많은 중·소영세농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하고 지원한도는 농가당 300만원이다.

김기준 위원장은 "1월부터 농산물 기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 소득 보장뿐 아니라 대도시 직매장,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aT 농가·중소농식품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영세 농가 및 중소농식품기업의 홍보비 절감 및 판로확대 제고를 위해 사진·동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aT에서 제작 지원하는 홍보 콘텐츠는 전문 사진작가와 동영상 촬영자가 aT센터에 위치한 aT 스마트스튜디오 또는 직접 현장을 방문, 제작한다. 지원내용은 사진촬영 및 편집, 동영상 제작,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으로, 사진 촬영의 경우 컷당 2천원 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정

후원금 전달식



오세현 아산시장은 3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영화테크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

통합방위협의회



김홍택 당진시장은 30일 오전 11시 15분 서울시 마포구 소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열리는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 전달식에 참석, 오후 3시 30분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

송년 기자간담회



가세로 태안군수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 참석.

임시이사회



김돈곤 청양군수는 30일 오전 11시 청양시 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청양군장애인체육회 임시이사회에 참석.



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성과공유회 열려

아산시시장 오세현은 '2019년 배방도시재생 주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019년 배방도시재생 주민공모·시범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을 주민모임과 동아리, 사회경제조직 등에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다.

주민공모·시범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에서 참여자 모집과 홍보활동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추진했다.

지난 23일, 배방농협에서 진행된 공유회는 원도심 골목길에 화분과 우편함을 제작·설치 활동을 한 자연과 함께하는 나무이야기사업, 천연비누동아리집중실에서 추진한 할머니 핸드메이드 협동조합 설립사업, 1250°C 동아리(경력 단절여성동아리)의 도자기 핸드페인팅 강사 양성사업, 풀담문화공동체협동조합 친환경 꽃차 소믈리에사업, 배방희망마을사회적협동조합 브라보 마이라이브 원예치료사업 등에서 1년 동안 추진한 결과물을 생활 공예작품 전시와 캠프비교육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한 행복통통! 건강통통!(해피드림 컵타공연단)의 공연 등으로 서로 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 이희원 센터장은 "내년에도 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각종 상으로 인센티브 5억여 원 확보

당진시, 올해 대외 평가서 최우수상 11개·우수상 24개·기타 19개 57개 부문 수상



당진시는 올 한해 중앙부처 평가 26개, 충남도 평가 17개, 외부 기관 평가 14개 등, 2019년 한 해 동안 대외 평가에서 57개 부문을 수상해 인센티브 5억 5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청양군 '매운고추체험나라' 본격 조성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충남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목재문화자연사재현관으로 유명한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 안에 '매운고추체험나라' (사업비 95억 5000만원)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서해안과의 거리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와 수익성 문제 등으로 담보상태였지만, 12월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송악면 행복키움 2019년 성과보고회 열려



당진시 자살예방 범시민운동 전개

지난 27일 '함께해요 자살예방 범시민운동' 발대식

당진시는 지난 27일 '함께해요 자살예방 범시민운동' 발대식을 갖고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전격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홍택 시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생명사랑 강좌가 이어졌다. 당진시가 이차례 발대식을 갖고 자살예방에 팔을 걷은 이유는 2018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가 45.6명으로, 2017년 보다 20.3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8년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 26.6명보다 19명이나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

아산시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송창운)은 26일 송악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19년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키움추진단원 및 협약기관, 후원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한 해 동안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의 성과와 활동 추진 결과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은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취약계층을 발굴



수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의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 자해, 운수사고 순으로 집계돼 질병 이외 사망원인인 고의적 자해 수가 급증하면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는 이날 발대식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 주 목요일을 안부 묻는 날로 지정하고 자살예방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당진시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

을 높였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에너지분류 분야와 소식지 방송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협력 새마을과는 행안부가 주관한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와 제1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분야 및 제도 정책 분야 우수상 등 5개 부문 수상을 공표했다. 당진시청 최상의 가치인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최우수상 수상의 성과가 있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1회 대한민국 솔라 리그 최우수상과 2019 에너지 이용 합리화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 노력을 인정받았다. 당진=최근수기자

각종 매운 음식을 특화하고 가족형·체류형 체험시설을 다양하게 설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군은 특히 58억원을 투자해 스카이워크 등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될 '칠갑산 관광자원 조성사업'과 매운고추체험나라를 연계,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절차 단계이고 칠갑산 관광자원 조성사업은 내년 1월중 실시계획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두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하고 후원금 협약 등 복지지원 확보를 통해 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송악면 복지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 송창운 단장은 "한 해 동안 송악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후원자 여러분과 단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승만 면장은 "후원자 여러분과 단원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내년에도 어려운 이웃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속적인 복지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하반기 청년퇴임식 가져

군민과 41년 생사고려한 공직자 석별의 정 나누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힘써온 공직자들이 퇴임식을 갖고 동료들과 석별의 정을 나눴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용현, 김기준, 김종원, 김종환, 이재환, 정동용, 조순상 님에 대한 청년퇴임식을 가졌다. 짧게는 29년부터 길게는 41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쓴 이들 공직자들은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참 봉사 실천에 앞장서고 폭 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태안의 성장을 이끌어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돼 왔다. 또한 실·과장, 읍·면장, 팀장 등을 두루 거치며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직원 간의 화합에도 앞장서 '더 잘사는 새태안' 건설에 이바지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 청년퇴임을 맞이한 공직자들은 동료 공직자 및 가족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 정들었던 공직 생활을 떠나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다. 퇴직자들은 "공직생활동안 옆에서 큰 힘이 돼 준 동료들과 가족들, 선·후배 공직자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그동안 맺어온 인연의 끈을 소중히 생각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안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화'

아산시, '국제안전도시' 실현에 앞장서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올 1월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을 시작으로 총 18개의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약 3,350명의 교육생에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인 '농기계운전기능사' 취득반을 개설하여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지난 6월 충남 시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43명의 교육생에게 '3톤 미만의 지게차조종면허' 취득을 도와 영농현장에서의 무면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데 이어, 12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특히 주목할 점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농기계팀 자체강사로 편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자원봉사센터, 홀몸노인 집수리 봉사 '훈훈' 태안군자원봉사센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우리/동네

# 논산시 올해를 빛낸 최고의 시책 선정

## 2019년 한 해 이끈 우수성과사업 선정...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최우수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올 한해 분청·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우수 한 시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2019년도 우수 성과사업을 선정했다.

우수성과사업 선정은 각 부서에서 신청한 23개의 사업에 대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단소장(5명) 및 보좌관(1명)과 외부 전문 평가위원(3명)을 포함한 10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 등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마을자치분권과) ▲우수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전략기획실), '논산형 청소년문화정책'(평생교육과) ▲장려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주민생활지원과, '논산

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회복지과),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문화예술과, '합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 사업'(관광체육과),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회적경제과), '사유지 및 공공기관의 유휴 토지를 활용한 임대(공영)주차장 조성'(도로교통과), '충남 국방벤처센터 설립(유치)'(국방협력과), '합정호 출렁다리 조성'(미래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4년 운영의 변화와 성과(건강도시지원과) 등 총 12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성과사업으로 선정된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사업은 지속가능한 논산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사업, 마을자치회 구성, 전국 최초 마을자치 박람회 등 마을민주의 구현을

목표로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 중심 행정을 펼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업인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수영장, 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구축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난 10월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물빛복합문화센터 등 3개 사업에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논산형 청소년 문화정책' 역시 청소년 근로법인제 해외연수, 김형석 청소년 문화학교, 청소년 문화제, 청소년 송년콘서트 등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육문화여건에도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 개발 및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은 '사람 중심' 시정철학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평가회를 주재한 박남신 부시장은 "이런 우수한 시책들이 모여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20년도에도 좋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한민국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향해 시정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책추진의 동기 부여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 31일 종무식에서 우수성과사업에 대한 시상상을 할 예정이다.

논산=김태성기자



## 계룡시 '새해 해맞이 행사' 열려

계룡시는 내년 1월 1일 오전 7시부터 금암동 새터산공원에서 2020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지역종교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최홍목 시장의 신년메시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망풍선 날리기 시간을 갖는다.

이어 모두가 함께 외치는 만세삼창과 해오름 순간의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북돋아 줄 신명나는 타북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부대행사로 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2020년 흰 쥐의 해, 새해가 꽃피듯이 네 인생도 꼭 필거야! 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토존도 설치돼 새해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새해 만복의 기운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는 해맞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손들지 말고 벨을 눌러 주세요

부여군, 교통안전디자인 시범사업 타유벨 시범운영 개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교통안전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타유벨을 부여중학교 앞 시내버스승강장 등 4개소에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타유벨은 부여군 국민디자인단의 아이디어로 시내버스 이용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손을 들거나 도로변까지 나오는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버스이용자를 배려한 교통편의 시범사업이다.

이용방법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타유벨을 누르면, 버스가 타유벨 전광판을 확인하고 승강장에 정차하여 주민들이 타면 출발하면 된다.

타유벨 설치장소는 부여중학교 앞 2개소, 쌍북리 육교 앞 2개소 총 4개소 버스승강장으로 유동인구와 차량발원 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운수업체 관계자는 "타유벨은 버스가와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시설로 부여군 전체 승강장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타유벨을 일정기간 시범운영 한 후, 주민들에 호응이 좋으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가축시장 현대화시설 준공

부여축협, 도내 염소경매시장 최초 개장

부여축협(조합장 정만교)은 지난 26일 부여군 남면 삼용리 소재 부여축협 가축시장에서 새롭게 단장된 부여축협 가축시장 현대화시설에서 박정현 부여군수 외 여러 기관장과 축산농가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은 관내 축산농가 2,000여명 및 전국의 한우 경매자들을 위해 부여군이 충남 3농협신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부여축협이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층 건물의 편의 시설과 염소 경매장을 준공하였다.

먼저 2층에는 4천평 규모의 관람석을 갖추어 한우 경매진행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1층에는 깨끗한 식당을 비롯한 경매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염소사육 농가들의 염원인 염소경매시설을 충남에서 첫 번째로 개장하여 일일 90두의 규모로 경매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의겸 부여군 염소협회장은 "염소경매 시설을 통해 염소산업 활성화 및 대중화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 농가당 60만원 도내 최초 굿뜨래페이로 지급

부여군, 2019년 농민수당·농업환경실천사업비 75억



충청권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부여군이 농민수당 19억 및 농업환경실천사업비 56억 등 총 75억을 13,000여 농가에게 농가당 60만원씩 부여군 전자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한다.

부여군은 올해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농가당 14만원 지급함에 따라, 부여군 농업인은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받던 농업환경실천사업비 45만원, 지역화폐인 센터비 1만원을 포함한 60만원의 농업분야 정책자금을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받게 되었다.

특히, 부여군이 농민수당 및 농업환경실천사업 지급대상자 1만

3,000명에게 75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굿뜨래페이는 고령층과 젊은층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와 모바일 QR결제 방식으로 함께 사용 가능하며, 농민수당 및 농업환경실천사업비는 지난 10일부터 카드로 배부하였고, 23일부터는 부여군 관내 주유소, 식당, 병원, 약국, 농협 등 1,0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앞으로 WTO 개도국 지위회기로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인 농업인에게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농민수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법적 제도화와 전국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등학생 글로벌 리더연수' 장학생 싱가포르 출국

계룡시, 3주간 영어연수·명문대 탐방·자원봉사 등 참여



(재)계룡시새마을문화회 이사장 최홍목은 지난 27일 글로벌 리더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관내 고등학생 20여명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계룡시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선진국의 대학들과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외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국외연수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기획한 '글로벌 리더연수'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장학생들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DIMENSIONS International College에서 영어연수, 명문대 탐방, 기업방문,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또 계룡시 홍보대사로서 현직인들을 대상으로 2020계통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등 과제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다.

연수 종료 후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장학생들의 소감발표, 연수 후기, 정책제안 등 장학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학회 관계자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장학사업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서천사랑상품권 스마트폰 속으로 '쏙'

충남도내 3번째로 내년 4월 1일 출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UP

서천군군수 노박래(가)는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7일 서천군청 집무실에서 두 기관은 모바일 상품권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서천사랑상품권은 2008년 출시 이래로 꾸준히 판매액이 증가하

고 있으며, 올해 70억 원을 판매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판매액은 최근 2년간의 판매액보다 2.3배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에 서천군은 서천사랑상품권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꾸준히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도입을 위해 고심해왔으며, 충청남도 내 세 번째로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내년 4월 1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의 도입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되면

기존의 포상금 및 전입지원금 등에 이어 농어민수당 등 지급 확대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모바일 상품권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서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류 상품권과 함께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김태성기자

## 취암동바르게살기위원회 연말 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 실천

취암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유영철)는 지난 26일 회원 30여명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날 회원들은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 가정 등 30가구를 직접 방문해 각 라면 2박스, 생

필품세트 30개, 휴지 30묶음을 전달했으며, 물품은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했다.

유영철 위원장은 "이런 나눔 행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암동바르게살기위원회는 능동적인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탐정호 정화활동 ▲학교폭력근절에방 캠페인 ▲교통사고 줄

이기 ▲태극기 나눠주기 ▲논산시민공원 야간순찰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철수 취암동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 없이 다 같이 행복한 취암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정 퇴직자간담회**

노박래 서천군수= 30일 오전 8시 30분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오전 11시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퇴직자간담회에 참석.

**간부회의**

박정현 부여군수= 30일 오전 8시 30분 서동브리핑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 전국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기관 선정

서천군, '우수' 9개 기관에 포함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2개 기관과 '우수' 9개 기관, '장려' 51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서천군이 '우수' 9개 기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군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선시 되는 기관장 혁신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개편 등을 통해 올해 초 혁신분권팀을 신설하면서 혁신업무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각종 성과지표에 혁신지표 등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또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행정 추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온 것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올 한 해 중앙 및 충남도 평가, 외부기관 평가 등을 통해 52건 1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며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내년 7월경에 열릴 예정이다.

서천=김태성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http://www.daejeontoday.com)

통정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김정섭 공주시장은 30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월간업무계획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 30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월간업무계획 보고, 오전 10시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유공시민 표창수여식,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보령시체육회 정기이사회, 오후 3시 주교면 송학리 노인회관에서 열리는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개소식, 오후 6시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중앙시장 상인회 송년회 참석.

공로연수식



맹정호 서산시장은 30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공로연수식에 참석, 오후 5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

교육공무직원 시령장 교부식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30일 오전 10시 청내 교육장 접견실에서 교육공무직원 시령장 교부식에 참석.

보령시체육회 정기이사회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은 30일 오후 2시에 보령시체육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공주시 서울시와도·농상생 우호교류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환은 지난 26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와 소속 학습 단체들과의 우호 협력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 협력 증대 및 도농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사업 도농 상생교류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시민과 농업인을 연계한 도농 교류사업 추진을 비롯해 귀농·귀촌귀향 지원사업과 도시농업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교차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작목 재배기술 및 도시농업 강사 등 인적교류 활성화와 함께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단체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다양하게 교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대환 소장은 "도시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단체들과의 단계적 우호협약을 통해 사람이 오는 농촌, 농업 가치를 공유하는 공주농업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금산군 '올해 10대뉴스' 선정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속 지역발전 미래 담보 역동성 발휘

2019년 금산군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미래를 담보하는 역동성을 발휘했다. 군정사업 최초로 내년도 예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최종 승소하며 금산의 자긍심을 지켜냈다.

특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순환센터의 완공은 민관협력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다.

금산군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예산 5000억원 돌파 ▲금산인삼축제 성공개최 ▲금산인삼 2067만불 수출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스템 완공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대법원 승소 ▲갯잎 4년 연속 500억원 돌파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분양 ▲금산사랑 상품권 발행 ▲출산지원금 전격 인상 ▲균형발전사업 259억원 확보 등



이달.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예산 5000억원 돌파다. 2005년 3100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2000억원 늘어 총 517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2019년도 본예산(3990억원) 규모 보다 획기적으로 1180억원(29.5%) 늘었다. 이는 보통교부세, 부당산 교부세 조기 확정내시,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 최소화 등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제38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개최다. 연속적인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부담감을 털어내고 98만7000명의 방문객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형문화관광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78억 원에 달하는 인삼약초 매출을 기록했다. 전국의 유명축제와 겹쳐진 일정, 가을철 불안정한 기상여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 등 방문객이 저조가 우려됐으나 역동성을 확인시키며 산업형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세 번째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의 가시적 성과가 주목받았다. 올해 금산인삼 수출은 2019년 11월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한 2067만 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을 기록했다.

2014년 3387만 불 수출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에 있던 금산인삼 수출은 2016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인삼 선호도가 높은 나라의 상위층 고객을 타겟 삼은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신규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및 유통박람회 초청 팸투어에 나서는 등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 집중한 결과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스템(소각시설 및 생활자원순환센터)의 가동도 주민들의 관심사였다.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향후 300년 이상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기록됐다.

이밖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금산군 승소(대법원), 금산의 효자 작목인 금산·추부갯잎의 4년 연속 500억원 돌파, 중공된 지 5년 동안 분양률 15%에 머물던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의 분양을 83% 달성, 금산사랑 상품권 발행, 넷째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전격 인상, 충남도 균형발전 경쟁도시사업 259억원 확보 등이 뉴스로 꼽혔다.

금산=주연기 기자



보령시 청년창업지원 정책 순풍 돛 달았다

올해 12개 팀, 내년에도 성장잠재력 갖춘 청년창업 지원 확대

보령시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청년 창업 정책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의 지도하에 12개 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7개 팀이 개업해 운영하고 있고 5개 팀이 영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시에 24일에는 대전동에 위치한 두카카페에 김동일 시장과 박병완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신두진 두카페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 창업점포 1호점 환관식을

가졌다. 이날 청년창업 1호점으로 문을 연 두카카페는 애견동반이 가능한 로스터티 카페로, 시로부터 창업자금 지원받아 지난 7월 문을 연 이후 4개월간 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성과사례로 꼽히고 있다.

두카페 외에도 ▲염마에김밥(분식) ▲명동키친(반려동물 베이커리) ▲무브필라테스(필라테스) ▲고잉플(공예제작) ▲파라다너(젤리 스틱) ▲글램뷰는(천북매 글램뷰 등 7개점이 개업해 운영 중에 있고, 미스터빈(커피숍) ▲하모디(모터사이클 카울제작) ▲밤상마스터(김) ▲맥스퍼터포츠(레이스카제작) ▲

아주모터스(소형 선박수리) 등 5개 점도 올해 연말 개점을 목표로 마바지 내부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시는 해당 청년 사업가들에게는 팀당 최대 1500만 원 이내에서 ▲창업실무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인대료 및 재료비,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1억6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월 중 사업수행기관과 3월 중 예비청년사업가 10팀을 모집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청년 일자리가 보령의 내일을 주도하는 만큼, 시는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가의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서산시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진류농약·NON-GMO 등 품목군별 안전성 기준 엄격히 적용

서산시는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26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로컬푸드 자체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용역은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국가인증 획득을 기피하는 관내 고령농이나 부녀농 등 더 많은 영세농들의 공공먹거리 공급체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문업체인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지사(지사장 송기선)에서 지난 7월 착수해 5개월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로컬푸드 생산현황과 타 지자체 및 소비자 단체의 인증절차와 사후관리, 자체

인증대상 품목군별 안전성 기준과 표기방법 등이 논의됐다.

특히 농산물 진류농약을 국가의 GAP인증 허용 기준치 이하로 할 것과 유전자 변형 종자 사용 금지 등의 기준이 제시됐으며,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등의 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인증기준 부적합 및 의무교육 미이수자의 부적합 인증 농식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인증을 정지하거나 인증 취소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로컬푸드 자체 인증기준을 관내 직매장은 물론, 향후 지역먹

거리 종합 전략 '푸드플랜' 추진관련 기업체나 군부대 등의 공공급식 참여 농가들에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학교급식은 국가인증인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사를 통해 "로컬푸드 인증체계는 그간 직매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오던 안정성 검사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농촌진흥청 지원 등을 통해 2020년부터 2년간 30여건의 사업비로 320가지 성분의 농약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에 있다.

서산=김정민 기자

우리/동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보령시 추가 지정고시

보령시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보호구역 7개소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품마위유치원 1개소이고, 노인보호구역은 천북면 신덕1리와 청라면 옥계1리, 웅천읍 두봉1리, 오천면 교성3리, 남포면 봉덕리 대야노인회관, 청라면 황룡1리 경포당, 남포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행복한 집 등 7개소이다.

이에 따라 보령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52개소에서 53개소, 노인보호구역은 39개소에서 4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모두 93개소로 늘어났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 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약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교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보행환경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시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 기자

금산군 젠더거버넌스분과위원회 성과보고회

"성평등 정책 실현 최선"

금산군 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지난 26일 여성청의 문화센터에서 공무원, 전문위원,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회 추진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올해 분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보고 및 내년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하며 성인지감수성 함양 및 자기방어훈련 등 4회 교육 추진과 금산군 공중화장실 14개소 안심벨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젠더거버넌스는 주민들이 성평등 관련 정책들을 체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지역 성평등 정책을 생산해 내는 과정이다.

군은 충남 시·군 젠더거버넌스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해 올해 금산군 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성평등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으로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김정민 기자

서산시 수수료 없는 세입통합 무인수납기 '호응'

세입금 일괄조회 및 납부 가능... 수수료 부담도 없어



서산에서 12월부터 운영 중인 수수료 없는 세입통합 무인수납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충청남도 최초로 도입된 세

입통합 무인수납기는 2019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포상금을 활용해 설치했으며, 민원인이 세무과에 비치된 무인수납기를 통해 서산에서 부과된

모든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부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조회해 카드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ATM기를 이용할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부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각 조회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과 타 은행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900원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지만, 세입통합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면 여러 종류의 세입금을 한 번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어느 카드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차량을 등록한 민원인은 "기존에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부서별 담당에게 상계좌를 안내 받거나, 은행 ATM기로 수수료를 부담하며 납부 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결제하는 서비스가 생겨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세입통합 무인수납기 도입으로 정기간 납기 시 장시간 줄을 서고 기다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민 기자

# 아산폴리텍, 취업 우수대학 선정 입학문의 '쇄도'

##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86.2%의 높은 취업률 나타내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장우영, 이하 아산폴리텍)가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86.2%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며 취업 명문 대학으로서의 인지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최악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9년 연속 80% 이상 취업률 달성이라는 쾌거다.

뿐만 아니라, 취업률 높기로 소문난 35개 폴리텍대학 캠퍼스 중에서도 '2019년도 취업 성과 우수캠퍼스'로 선정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번 취업 우수캠퍼스 선정에서는 취업률뿐만 아니라 질적 취업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취업유지율까지 반영해 심사한 것으로 취업의 양과 질 모두 인정받

은 것이다. 아산폴리텍대학의 취업률 86.2%는 26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졸자 평균 취업률 67.7%보다 18.5%포인트 높고,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 71.1%보다도 15.1% 높은 수치다. 게다가 전국 폴리텍대학의 평균 취업률 81.0%보다도 5.2%가 높다. 전국 최상위권의 압도적 취업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취업유지율에 있어서도 1차 92.5%, 2차 8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졸업생들이 전공분야에 취업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질적 취업의 수치를 대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산폴리텍의 높은 취업률의 핵심요인은 기업과 함께 교육하는 차별화된 학사제도에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학과별 20~40여 개의 우량업체를 집중분석·관리하는 기업전담제이다. 아산폴리텍의 전 학과는 전공분야 우량업체를 매년 발굴하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내용과 장비를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또한, 산업체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거나 기업과의 MOU 등으로 취업과 연계시키는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아산폴리텍의 학사제도인 FL시스템 또한 기업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젝트 과제를 1학년 2학기부터 졸업까지 3학기 동안 수행하는 것. 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기술요소가 반영된 과제도 최종 작품을 만들어 내고, 면접 시 수행 결과를 취업포트폴리오로 활용해 자신의 기술력을 검증받아 취업하는 취업성공 프로세스다.

아산폴리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 개편도 지속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미래 전략 산업인 IoT분야를 타깃으로 학과 신설을 추진했고, 폴리텍 4차 산업혁명 개편과목에 선정돼 30억 원의 시설·장비비를 확보해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는 'IoT정보안과'를 신설했다.

하이테크과정은 대졸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10개월 심화과정으로 운영했다. 2019년 첫 신입생을 모집해 운영한 결과는 놀랍다. 경영학, 피아노, 디자인 전공 등 IT분야와 무관한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 단 10개월 만에 IoT전공분야의 기술을 익혔고, 수료도 하기

전에 19명 중 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남은 학생들도 대부분 관련 업체에 면접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 IoT정보안과는 폴리텍대학의 '2019년도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신설학과 최종평가'에서 '우수 학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 역시 기업과의 연계 교육이 빛을 발했다. ㈜윈스 및 ㈜엔오원 등 국내 정보안분야 우량기업이 교과운영에 참여했고, NAVER, 경찰청, 관공서 등에서 실제 활용되는 3억2천6백만 원 상당의 교육훈련장비도 기증 받아 현장실무와 동일한 환경의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미래 전략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개편은 올해도 큰 성과를 거뒀다. 2019년 반도체 디스플레이과가 '미래 성장동력 개편학과'로 선정되어 10억 원의 시설·장비비를 확보하고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개편을 완료했다. 향후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팜정 사업장 13조원 투자와 맞물려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공급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교육청-호서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교육 협력**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원장 고미영)은 27일 호서대학교 세미나실에서 호서대학교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기반 소프트웨어 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 제6기 시민명예기자 및 시정신문편집위원 위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6기 시민명예기자 및 제5기 시정신문편집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 유병훈 부시장은 명예기자 및 편집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아산의 아름답고 희망찬 모습을 많이 발굴해 시민들에게 전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행복도시 교통안전·소통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1년 동안 유관기관 회의 9차례 개최 20건 개선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살기 좋은 인간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행자중심의 교통정문화 시설, 안전속도 5030정책 등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9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에, 일부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 몰림현상이 일어나 교통흐름이 원활하

지 않았다. 행복도시의 교통과 관련된 각 기관들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최적화 및 교통흐름 개선회의' 이하, 개선회의)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 행복청, 세종시, 세종경찰서,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LH

개선회의는 교통에 관련된 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협의함으로써 개선사항을 신속하

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11건을 개선 완료\*하였고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9건에 대하여는 '20년 상반기에 개선 완료 할 예정이다.

신호최적화회의의 한 관계자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교통정문화 및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한 결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했다"라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대중교통 및 개인형이동수단(PM)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회의를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 배재대 광현민 취업지원관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배재대 대학일자리본부 광현민 취업지원관이 대학일자리센터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은 공로로 오는 31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다.

광 취업지원관은 취업 컨설턴트 분야 입문 12년차 베테랑으로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행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초기 정착에 힘써왔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체계적 통합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는 데 노력했다.

배재대는 시행 첫 해에 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학생들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체계화와 환류시스템을 구축했다.

광 취업지원관은 "대학일자리본부 전원이 힘을 합쳐 일궈낸 성과인데 혼자 상을 받아 쑥스럽다"면서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 모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이운종 대표이사 선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창단준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한 1차회의 이후 기존 법인정관 전부개정이 마무리되어 지난 12월 19일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으로 명칭을 변경, 창단준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충남아산FC를 새롭게 상징할 엠블럼 변경과 법인인하 각종 규정 개정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등 운영적·실질적인 창단을 위한 준비 사항들이 논의 되어 이를 토대로 2020년 2월 창단식을 통해 명실공히 충청권 유일의 프로축구단으로 실질적인 창단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충남아산FC를 상징할 새로운 엠블럼은 아산시의 상징인 부영이를 형상화 하여 현충사의 지붕, 거북선의 견고한 등판을 통해 아산시의 대표성과 승리를 향한 강인한 의지를 표현했다.

유병훈 부시장(창단준비위원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해체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시일내에 성공적으로 시민구단으로의 창단에 이르게 된 데에는 시민들의 염원과 더불어 창단준비위원회가 기여한 바가 크며 앞으로 충남아산FC의 K리그2에서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공주시,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 활동 결산

### 올해 유치활동 결산 및 2020년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 활동 기준 마련



공주시(시장 김정섭)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는 올해 유치 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유치전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 베스트 활동 설문조사 실시했다.

올해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활동을 대상으로 베스트 활동을 뽑는 설문조사 결과 유치 서명운동 15만명 돌파가 1위를 차지했다.

총 356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유치지지 15만명 돌파가 103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고,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펼쳐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유치기원 특별공연이 40표로 그 뒤를 이었다. 3위는 23표를 얻은 문체부와 충남도청, 국립국악원, 국회 등에 제출한 국립충청국악원 청원서 제출로 나타났다. 4위는 유치기원문화제 5위는 3만·5만5천·10만·15만번째 서명자 이벤트 진행이 차지했다. 유치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올 한해 유치활동을 평가, 분석하고 내년도 유치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국악원에서 추진한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2월 경 나올 예정이다.

최창석 위원장은 "유치위는 올 한해 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주의 국악 위상을 높여 국립충청국악원이 반드시 국악의 고장 공주에 건립되도록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남서울대, 2019년 2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서 받아

### 2019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패(서) 수여식



남서울대학교 유승용 총장은 27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아트리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패(서) 수여식'에 참석해 대학기관평가인증서를 받았다.

이로써 남서울대학교는 2023년까지 5년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으려면, 6개의 필수 평가기준(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비율, 교육비 환원율)와 5개 영역(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대학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30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남서울대학교는 이번 평가의 5개영역(▲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대학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특히 학교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수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현장방문평가

위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남서울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전공, 교양, 비교과 역량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투자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취업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좋은 평가를 얻었다. 유승용 총장은 "이번 평가인증 결과를 계기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정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충남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포럼 개최** 충남대학교는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협의회와 함께 12월 27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별관 CJU홀에서 지역사회발전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NIS 사업 준비를 위한 제1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어르신노래경연대회, 한국마사회 천안지사에서 열려**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진행한 "나는 가수다" 연합노래경연대회가 26일 한국마사회천안지사에서 진행됐다.

## 롯데백화점 대전점, 공기청정기는 필수

### 공기청정기구매 전 체크사항 및 다양한 기능의 제품 추천

정명한 하늘을 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환경 속에 살다 보니 공기청정기는 필수 가전 품목이 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 가전매장을 방문한 직장인 이모씨는 "날씨가 좋아도 실내 공기는 정제되어 나쁜 상태가 되기 쉽다.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창문을 통한 환기보다는 공기청정기를 통해 24시간 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보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최근 3개월(10월~12월) 공기청정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은경)에서는 구매 전 체크 사항을 안내한다.

- #1. 사용 공간 면적을 고려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정용량을 갖췄는가 상시 가동해야 하므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확인해 적정용량(표준사용면적)을 가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2.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필터 등급과 교체 시기, 비용을 확인했는가 좋은 공기청정기의 기준은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고효율 미립자 공기)필터 H13 이상 등급의 사용이다. 청결을 위해 주기적 교체기 필요한 연간 필터 비용 비교도 꼭 고려할 사항이다.
- #3. 미세먼지 제거 성능 및 유해가스 제거(탈취) 효율을 알 수 있는 CA인증마크를 지녔는가 황사, 알레르기 물질,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을 제거해 호흡기 질환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거나 유해가스 제거 기능이 우수한지 확인한다.

송병배기자



**서천군 희망 2020나눔캠페인, 서천건설본부 직원 성금 일천만원 전달** 한국중부발전(주)서천건설본부는(본부장 임호윤) 27일 서천군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서천건설본부 직원들이 1년간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박은희)에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2019 송년음악회 개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는 지난 2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800여명의 회원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대전교육청, 국가안보역량 강화 기여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9년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27일 행정안전부 본관 205호에서 2019년도 비상대비훈련 유공 정부포상수여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천향대, 학생간부 학생문화활동 교류 워크숍**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26일 오후, 대학인근에 위치한 도교 컨벤션리조트에서 총대의 원회와 동아리연합회 등 9개 자치단체 학생간부 30여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학생 자치단체장 임명장 수여식과 2020년도 학생문화활동 전반기에 대한 1박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남개발공사, CDC Partners 위촉 및 혁신과제 토론회 개최** 충남개발공사(사장 권혁문)는 27일 지역주민의 경영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도민 10명으로 구성된 'CDCPartners'를 위촉하고 공식 발대식을 가졌다.



**건강대,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내·외 보건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우뚝'** 건강대학교총장 이원욱) 대학혁신지원사업단(단장 이규환)은 메디컬 캠퍼스의 보건료계열 전문과 양성 우수프로그램을 캄보디아에 전파해 2016년부터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교(NPIC)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해 온 인공광학과 교육과정 결과 전문면허 취득자 48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 <화제의 인물> 대전 기성동 판지꿀농원 박근호 대표 40년째 양봉업 외길 인생... '꿀벌 박사'



양봉사업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양봉업자가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대전 서구 기성동 장태산 기술에서 40년째 양봉사업을 하고 있는 판지꿀농원 박근호(60·사진)대표가 그 주인공. 박 대표는 1년에 딱 3개월, 꿀벌이 왕성히 활동하는 계절에 큰 돈을 벌어 이미 TV방송채널A 서민감부에 소개될 만큼 유명세를 탔었다.

박 대표의 양봉업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그래서 그를 주위에서는 '꿀벌 박사'라고 할 만큼 벌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다. 단순히 책에서 배운 이론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벌과 오랫동안 함께하며 벌에 대한 습성에서 양봉사업에 하기까지 양봉에 대해선 단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 할 수 있다. 박 대표가 양봉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겨우 18세. 폐결핵에 걸린 아버지가 꿀과 로열젤리를 먹고 호전되는 모습을 보고 양봉을 시작했다. 그 이후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벌통 30군을 구매해 본격적으로 양봉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외삼촌이 양봉업에 종사했던 것도 박 사장이 이 업계에서 성공했던 든든한 후원자이자 은인이기도 하다.

박 대표의 양봉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그의 인생이기도 했다. 그는 꿀벌을 키우며 꿀벌의 생활을 알고 자연환경에 그리고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함을 알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어지고 마는 꽃에서 꿀과 화분 푸로폴리스 등)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꿀벌에게서 질서를 배우고 희생과 공존 무리를 다스리는 리더십도 배우며 40년 넘게 외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역대연봉의 양봉사업에 성공하기까지는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양봉업 사업 초기 벌에 쏘여 보건소에 실려 간 박 사장은 그가 벌 알레르기 체질이라 자칭 잘못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들기도 했다. 하지만 벌 알레르

기 체질은 딱히 치료약도 없어 지금도 이러한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이일에 전념하고 있다.

박 대표는 향후 양봉업이 우리 농가에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비전에 비해 정부에서의 양봉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입지조건은 국내 양봉산업 발전에 큰 기회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동안 양봉산업을 바라보는 정책 당국의 관심과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드넓은 산지에 비해 양봉농가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밀원수 조립과 한편으로는 잘 가꾸어진 기존 밀원수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이외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생산성 악화, 벌꿀 등 급제 시행, 꿀벌 질병 대책, 무지조금 도입, 양봉연구소 개설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소문을 통해 조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양봉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양봉산업 육성법에는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률제정으로 그동안 어려움에 처해있던 우리나라 4만 양봉농가들에게 큰 힘이 됐다.

한편, 박 대표는 (사)한국양봉협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대전지회 회장 4선(12선)을 역임하고 현재 양봉협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는 한국 최초로 세계양봉대회를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1), 대전광역시시장(2014, 2015), 대통령 표창(2017)을 수상했다.

이정복기자

## 공주시 정안면 복합청사 조명으로 새 단장



조경시설물 전문업체인 ㈜에코스타일이 연말연시를 맞아 재능기부로 공주시 정안면 복합청사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명으로 새 단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복합청사에 설치된 야간조명은 청사 화단에 심어져 있는 수목과 이음담배 조화를 이뤄 주변을 운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놓으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맹시호 ㈜에코스타일 대표는 "변화된 면사무소에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인사

**대전광역시**  
 ◇승진 ▲대변인 한대경 ▲예산담당관 박현재 ▲정보화담당관 김미경 ▲기업창업지원과 김동윤 ▲소상공인 김낙운 ▲과학산업과 성준호 ▲기반산업과 김성우 ▲지질분권과 서소원 ▲문화유산과 안준호 ▲복지정책과 박경미

**세종시**  
 ◇3급 인사교류·파견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운영지원과 김탁중  
 ◇3급 승진요원 ▲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권영운  
 ◇4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천홍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류제일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문화체육관광국관광문화과장 이철복

**대전 서구**  
 ◇4급 전보(1명) ▲자치행정국장 권승근  
 ◇5급 승진(6명) ▲민원봉사과장 정정태 ▲둔산1동장 민인홍 ▲둔산2동장 오대우 ▲둔산3동장 홍윤경 ▲복수동장 전재형 ▲건축과장 신상규(12.2) ▲5급 전보(2명) ▲가수원동장 박교순 ▲산업진흥과장 고강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배 병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 주재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최홍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정인학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동하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박종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백승준 ▲충남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상근

**한전원자력연료**  
 ◇팀·부장급 ▲감사실 기술사무부장 정기동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김영로 ▲기획처 조직예산부장 박종화 ▲기획처 성과관리팀장 이규만

※ 대전시·세종시 한전원자력연료 인사정보 홈페이지 참조.



## 관내 청소년 교육의 동반자가 되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진로체험·공학교실·특강 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진로체험 학습, 공학교실, 입일특강, 장학금 등 초·중·고 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관내 청소년들의 교육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진로체험 학습으로, 2017년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된 자유 학년제(자유학기제)는 시행 초기 각 학교에서 학습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는 상태였다. 이에 당진제철소는 선제적 교육지원을 실시했다.

진로체험학습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기술연구소 석/박사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연구원들이 직접 다루는 연구 설비를 체험한다. 또한 생소한 철강 분야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당진제철소 견학을 실시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해 DIY 가구 만들기 펜시우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체험관 견학도 진행했다.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다.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이론수업과 실험키트를 이용한 실습수업으로 병행되며, 주니어 공학교실 역시 2005년 시작해 15년째를 맞이했으며, 직원들이 강사로 나선다.

당진제철소는 인적자원을 이용한 '지식기부' 교육도 있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강단에 오르는 '입일특강'으로 대한민국 명장과 철강분야에 오랜 숙련자로부터 듣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꿈, 미래를 주제로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과 소통한다.

당진=최근수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식 블로그

## '건강일기' 1일 1만3600명 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식 블로그 '건강일기'가 올해 11개월 동안 일평균 1만3600명, 연간 49만명이 방문했다.

29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방문자 유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이 86.91%, PC가 13.09%로 PC 대비 6배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전체 방문자 중

여성의 비율은 70.1%로 남성 29.9%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방문율을 보였으며, 주말방문의 연평균 방문율은 19세~49세로 84.6%를 차지했다.

블로그 유입이 많았던 월별 검색 키워드로는 1월 '호흡'(12.8%), 4월 '비인두암 증상'(13.2%), A형 간염(9.2%), 7월 '복숭아 효능'(14.9%), 8월 '복숭아 효능'(16.2%)으로 나타났다.

건강 건강일기 블로그는 건강관련 대표 블로그로서 Data 분석을 통해 네티즌들이 관심가지고 궁금해하는 건강지식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활발한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 서산시 대신읍소재 롯데케미칼(주)

## 서산시장애인복지관에 난방비 지원



충남 서산시 대신읍소재 롯데케미칼(주)이 27일 서산시장애인복지관에 난방비지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 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주)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소

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이기남 관장은 "롯데케미칼(주)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원 금은 지역 재가 장애인 가정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대투 논란



김현태 논설고문

2019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2019년이다. 우리는 한해를 마감하며 참으로 많은 회한을 가슴에 남기고 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 해라고 풍요와 풍성함을 소망했던 때가 바로 옛그제 같은데 벌써 해를 넘기는 시점에 서 있다.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던 옛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해마다 이맘때 즈음이면 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낸다는 말을 하게 된다. 회고하건데 2019년처럼 다사다난했던 때가 있을 까 싶다. 나라는 졸판 전쟁과 평화의 사다리 타기를 해 왔다. 평화의 한반도를 말하던 꿈같은 시간이 금방 지나고 수도 없이 쏘아대던 불상의 로켓들이 평화의 꿈을 잇아가 버렸다. 지금도 북미대화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으르렁대는 모습이 마치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강산 시설물을 금방이라도 때려 부술 듯이 요란을 떠는 모습에서도 평화를 향한 길이 멀지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평화는 결코 구걸이 아님을 깨닫는 마음이 아쉬운 시작이다.

무엇보다 경제난은 국민들을 옥죄는 아픔이었다.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길거리에는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온 가족이 집단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12월까지도 이어졌다. 심지어 지난 7월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발견된 탈북민모자사 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

### 2019년 한해를 마감하며

주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뒤늦게 법안을 발의하느니 뭐니 호들갑을 떨다가 이제는 시들해져 버렸다. 일가족 집단자살은 울 들어 계속되어 왔다. 사회안전망이 구멍이 뚫려도 땡&#46175땡 있음은 보게 된다. 송과 3모녀 자살사건이 충격을 주면서 무엇인가 달라지나 싶었는데 올해 계속되는 일가족 자살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복지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참으로 고통의 사회이자 비극의 현주소이다. 심지어 유명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마저 잇따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추정되는 집단자살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집단 자살사건이 울 들어 서울, 화성, 시흥, 김포, 대전, 인천, 충북단양, 대구 등 모두 32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의 일가족 자살일지를 들춰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청년들조차 무료급식소를 찾아 이른 새벽부터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내년이 더욱 걱정이라고 한다. 생계형 가족들의 집단자살이 풍요로운 말장난을 비웃듯이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각심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무엇이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을 이처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냉철히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일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무엇 때문인지 물어보아야 하는 정치가 해야 하는데 이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어느 누구 책임을 통감하는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권력욕과 국회의원 자리

에만 탐닉하는 정치권의 모습만 보인다.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지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나라마저 등지고 떠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범죄국가인 대한민국에 범마져 이현병비행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형평성을 저버리는 이상야릇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서민들은 교통법규 하나면 어겨도 10만원에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마저 잇따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언젠부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이현병비행의 법 적용을 해왔는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다. 법관의 양심과 법대로 해야 할 일들이 정죄할 수 없는 '가래 뿜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통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제는 사법 불신까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2019년을 보내왔다.

올해 우리 국민들은 비정상이 판을 치는 정치판을 목도했다. 국민을 앞세우며 대립과 반목을 부추이고 각종 부정부패의 연쇄 고리들이 구석구석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체감했다. 아직도 썩은 부패의 고리를 감추고 분침을 하며 양두구육의 모습으로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속이 짝이 없다. 요즘 일본에서도 수뢰혐의를 받는 의원이 체포되고 그 일련의 비리과정을 속보로 전하면서 대서특필하고 있다. 부패정치인은 일 본이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사회악인이 틀림이 없다. 법을 어기면 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언제나 들끓어 나면 그 이상 개망신을 당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패한 정치인들의 연결고리가 다 파헤쳐지지 않고 내연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2019년의 부패 수사는 종료가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년 한해를 마감하며 느끼는 것은 올 한 해 국민들의 고통지수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다. 광화문에서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정치구호를 외쳐댔고 서초동 거리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집회 모습도 보였다. 아침이 무서운 자영업자들은 삶이 너무나 버거웠다.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데도 적자에 허덕이며 눈물로 폐업을 해야 했다. 국민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부 언론들은 불의에 침묵하고 외면하고 호도하고 정치권력에 이복을 하며 정치시녀임을 자임해 왔다. 역대 이런 언론 시대는 없었다. 언론이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정도언론의 길을 망각하며 아직도 매화터방만을 일삼고 있다. 이런 2019년의 언론의 모습도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늑대소년이 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도 생계형 집단 자살이 잇따르고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부패정치인들이 활보하고 권력에 이복하는 치졸한 언론행태가 판을 치고 경제가 추동력을 상실하고 저출산고령사회의 기형적 사회구조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어 왔다. 뭔가 나사가 빠진 형국이다. 곱을 하는 나라처럼 보인다. 올해 대한민국은 나라안팎으로 브랜트가치를 스스로 추락시킨 역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해였음을 회고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쓸쓸한 한해로 모두가 뼈아픈 자성의 해로 삼았으면 한다. 해양성 밖에서 보이며 2호가 보내는 사진에 창백하고 푸른 점인 지구 속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두가 참으로 힘든 한해였다. 부디 2020년은 달라지기를 빌발 뿐이다.

## 사설

### 점점 없는 한일관계, 장기화 대비해야

한일정상이 중국 청두에서 만나 양국 최대 현안인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큰 결단을 위한 합의는 없었다. 문재인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15개월 만에 정식으로 만나는 회담이었던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수출규제가 결국 일본에도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상생에 대한 통 큰 정치적 타협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전 물꼬를 틀 때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회담에서 문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수출규제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베총리 역시 한일관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의 갈등상태를 지속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아베총리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끝난 만큼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문대통령 역시 대법원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양 정상이 근본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다가설 수 없는 현안이란 점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자리는 결국 양국 입장만 재확인한 자리라 봐선 된다.

특히 정상간 대화시작을 갈등해결을 위한 새 국면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양국의 점점 없는 평행선 확인이 되면 결국 진행형에 대한 준비와 대비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케 한 것 일수도 있단 분석은 분명 새겨들어야 대목이다.

정상회담 이후 벌써부터 일본 내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현실화 할 경우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 낙관적인 부분만 보다가 다시금 무방비로 당할 수도 있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만남의 시작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은 여전히 이의 해소를 위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선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불사할 수 있음을 지금 우리는 우방이라고 믿었던 국가로부터 학습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체질강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다.

### OECD가 경고한 암울한 한국 경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2021년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경기 불황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OECD가 공개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2019년 잠재성장률이 2.7%, 2020년에는 2.5%, 2021년에는 2.4%로 추산됐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실질GDP증가율을 의미한다. 즉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불리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게다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문제가 많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세 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선진국들은 거의 변함없이 거나 약간 떨어진 정도여서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도 문제다.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도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침체산 증이다. 짐작하시피 우리 경제 불안 요인의 기저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급

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저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부족한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비생산가능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은 관체제의 맞춤형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 중 노동투입의 증가 둔화와 같은 맥락에 있다. 게다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가뜰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주고,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런 부분이다.

아예 현실에 맞도록 주52시간 근로제나 최저임금 문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요인도 만만치 않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협상안에 합의하면서 무역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철폐를 위한 대화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한 수출규제 철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이다.



## 대전소방, 국내 최대 높이 70m 굴절고가차 도입

대전시 소방본부는 초고층 화재에 대비해 2020년 새해부터 국내 최대 높이인 70m 굴절고가차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성소방서에 배치되는 70m 굴절고가차는 말단에 설치된 바스켓에 소방관이 탑승해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과 화재진압이 가능하고 6단 직진 분과 2단 굴절 분의 혼합 기능을 갖춰 기존 고가 사다리차가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23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고 자동방수포가 설치돼 있어 최대 100m까지 무인방수가 가능해 화재 열기로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도 진압 활동이 가능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70m 굴절고가차 배치로 고층 건축물 화재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공주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개최

공주시(시장 김경섭)는 지난 26일 고마에서 공주시의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환경미화원 3명의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강형식, 최선환, 유희종 씨의 가족 및 환경미화원 동료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수여와 올해의 클린지킴이 표창, 한마음 장학금 전달, 퇴임식 기념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퇴임을 맞이한 유희종 씨는 "공주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환경미화원 동료들의 안전을 당부드린다"며, "퇴임식을 마련해 준 공주시와 환경미화원 상조회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섭 시장은 "20여년 이상 시민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준 퇴직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2의 멋진 인생도 마음껏 펼쳐시길 바란다"며 퇴직자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했다.

아울러 올해의 클린지킴이로 선정돼 표창패를 받은 한유환, 이상익, 천동희 등 3명의 직원들에 대



한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공주시청 환경미화원상조회(회장 명송식)는 이날 장학금 300만원을 공주시한미중앙학회에 전달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수년째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공주=정상범 기자

## 서구 2019 송년 음악회 개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27일 구청 2층 구방산 홀에서 '사랑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2019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TJB 최승희, 이은지 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펼쳐졌다.

특히, 이번 송년 음악회는 입장 시라면 한 봉지를 관람객에게 기부받아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을 찾은 한 주민은 "연말을 맞아 수준 높은 공연도 즐기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장종태 청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

운 이웃을 돌아보고 기부하는 음악회를 기획했다"라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음악회, 따뜻한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매년 구민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표적인 겨울 음악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 확산 방지 및 예방 수칙 캠페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사율100%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ASF에 감염된 돼지고기는 서동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 ☑ 국내 입국시 동물과 축산물(육류, 햄, 소시지 등)은 반드시 신고
- ☑ 축사 내외 소독 실시, 축산농가 방문 및 방생지역 방문 자제
- ☑ 발열 및 피부충출혈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
-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한 방역조치 협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9060/4060**

의심축 발견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주 관 | 대전투데이



후 원 | 대전광역시

